

## 째깍째깍, 두근두근

하트 리듬 희망 대상

이 영 혜

심장소리 커지는 밤  
하루를 체크 한다  
사람들은 이런 시간 늘 지쳐 잠들지만  
한 순간 일탈도 없이 기를 들고 정진한다

만나고 헤어짐이 함께 가는 이 세상에서  
에돌아 오는 날 보며  
자정 전  
두 손 포갠 새 날을 기다린다

맥박이 느려지고 불꽃이 사일 때면  
항혈전제 한 알을 마른 목에 삼키고  
무쇠옷 겹겹이 두르고 폭풍 앞에 서야해

내 이름 선명한 일일생활 보고서에  
점멸등을 켜 놓고 때로는 눈 감을 것  
골목을 지키고 서서  
오늘을 바라본다  
-병상에서 쓴 줄시 '시계' 전문-

직장인, 엄마, 아내, 며느리, 큰딸...

많은 이름표를 목에 걸고 씬 없이 걸어온 내가 덜컥 쓰러졌다. 째깍째깍 잘도 가던 시계가 멈추어버린 것이다. 시계의 전지가 다 닳아버리듯 나도 번 아웃이 되어 방전이 되었다.



#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며칠 전 가족과 산책길을 걷다 여러 차례 땅이 흔들리고 어지러워 지진인가 생각했던 것이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일 줄이야...

쓰러지기 전날, 딸의 교복과 운동화를 빠느라 한참을 쪼그려 앉아 빨다가 일어서니 어지럽고 귀에까지 들리듯 가슴이 쿵쾅거리며 크게 뛰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쉬었지만 증세가 가라앉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맥을 짚어보니 빈맥과 서맥 증상이 반복되었다. 일찍 자리에 누웠다가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을 나서며 남편과 출근 인사를 하다 스르르 주저앉아버렸다. 큰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장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신을 차린 내가 요기를 느껴 화장실에 가려고하니 팬티형 기저귀를 줘 도저히 그리할 수 없노라하니 이동식 변기를 가져왔다. 정신은 돌아왔는데 의료진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대체로 노년층이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이나 자신의 발치에 멍하니 시선을 둔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나도 중환자실의 한쪽에서 정기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며 노란액이 든 링거 같은 것을 맞으면서 얼른 저것을 다 맞고 빨리 나가야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삼일 뒤 딸의 대학수능고사라 예쁜 도시락을 사 놓았는데 그날 먹을 반찬을 미리 해서 먹여봐야 되는데...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지, 목 막힘이 없는지, 위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내가 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으로 푹 푹 떨어지는 노란 수액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지며 수능일은 엄마 없이 속절없이 가버리고 나는 병실에서 하루 종일 시험지와 외로운 싸움을 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사선생님은 부정맥 진단을 내리셨고 나 같은 심방세동 환자는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여 사지 마비나 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또 다시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병원에 와야 한다고 하셨다.

너무 무서웠다. 어릴 때 심장병으로 먼 강을 건너간 여동생 생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 “엄마”하고 불렀을 때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딸 혼자 남겨지는 날이 올까봐 무서웠다. 자식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일은 내가 건강해야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때 알게 되었다. 어찌겠는가? 나는 엄마이기에 무쇠옷을 두르고 부정맥이라는 폭풍 앞에 서야했다.

이후 난 처방해준 약과 함께 세끼 밥을 챙겨먹는 것처럼 운동도 빠뜨리지 않았다. ‘남보다 더



#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많이, 더 높고, 더 빨리'를 잊고 뾰족한 눈 꼬리를 내리며 타인의 실수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하며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애썼다. 평소에 좋아하던 빵이나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로 챙겨 먹고 소스나 양념을 넣는 복잡한 요리과정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생것을 먹어 자연과 가까운 음식을 섭취하려고 했다. 두어 번 정도 부정맥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삼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보니 병에 대한 두려움 대신 친구처럼 늘 함께 다니며 토닥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튼튼해지기가 싶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친구야, 노을자"하며 날 불러 앉혔다. 암이 내 몸에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정맥 때문에 4년 동안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살았는데 암이라니...'하며 울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부정맥을 모르고 예전의 식습관대로 살았더라면 수술도 못할 만큼 악화되었을 암 덩이가 수술과 방사능 치료로 없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 두 번째 위기 앞에서 난 또 엄마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공부를 안 해도 되니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딸의 임용고사 뒷바라지를 하지 못했으니...

그래도 암 환자가 간절히 바라는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아직 잘 살고 있다. 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잘 챙겨 먹으면서...

이것은 비밀인데 또 하나의 '진짜 친구'가 생겼다. 그것은 자연이다.

병을 이기고 직장의 울타리를 나온 내가 한 때는 맞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순을 바라본다. 안단테의 걸음이 점차 아다지오로 느껴지며 자주 휘청거리지만 그때마다 자연을 찾는다.

내가 힘들 때 느티나무를 가만히 안으면 수액을 흘리고 울며 '쉬이이'하는 백색소음으로 불안과 번뇌를 잠재워주었다. 그러면 내 심장은 편안해졌다. 편백나무 숲이, 우리의 기준대로 잡초라고 불렀던 길가의 바랭이가 부정맥과 지천명에 만나게 된 암에게 다정다감하게 말을 걸어 고통을 잊게도 했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처럼 난 자연에게서 둥근 미소를 짓는 법을 배웠다.

인디언들이 '양쪽이 만나는 달'이라고 하는 시월, 다음 달이면 난 할머니가 된다.

요즘은 역새가 하얀 상복을 입고 춤을 추고 단풍이 만장기를 들고 그녀 뒤를 쫓아오는 것도 아름답다. 생물학적 나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곧 태어날 손자에게 예쁜 할머니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주름 하나하나에 깃든 지나간 폭풍과 그것으로 더 여물어진 내 얼굴을.



#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그래서 난 오늘도 째깍째깍 시계처럼 내 심장을 체크하며 정진한다. 피곤하면 점멸등을 켜고 잠시 쉬면 된다.

두렵지 않다. 몇 번의 위기도 잘 넘겼으니.전봇대 아래서 골목을 지키고 서 있다. 손자가 얼른 나타나기를.

손자가 보이면 어릴 때 늦은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고 작은 손을 꼭 쥐고 따뜻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황빛이 도는 편안한 방에 아기를 낳고 파리해진 딸을 누이며 뜨끈한 미역국을 끓여줄 것이다.

그러면 멀리서 교회 종 소리가 울리고 손자는 새근새근 잘도 잘 것이다.

